탁무권

어린이 전문서점 노원문고 3매장 개장한 탁무권 대표

다기능 문화공간으로 노원구 어린이들 활짝 웃었네

지난 7월 16일 서울시 노원구 일대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활짝 웃었다. 지하철 노원역 부근에 어린이 전문서점 노원문고 3매장이 개장을 한 것. 이 지역 아이들에겐 이제 일본의 어린이 전문서점 '크레용 하우스'가 부럽지 않다. 노원문고 3매장은 규모나 장서면에서 국내 굴지의 어린이 전문서점으로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고 있다. 지역주민들 반응도 폭발적이다.

1매장을 일반도서, 2매장을 문구·음반 매장으로 운영하며 10년간 노원문고를 꾸려온 탁무권 대표는 "예상은 했지만 개장 직후부터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노원구에 터를 잡고 노원문고 1매장을 오픈한 지 10년 되는 해에 이룬 일이라 3매장을 바라보는 탁 대표의 감회는 남다르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서점을 운영하며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인구수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지요. 특히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모들이 많은 편인데 이들 자녀를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3매장은 꼭 어린이 전문서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지역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소원하던 일을 이룬 것처럼 뿌듯합니다."

서점은 마침 방학 후반부를 내다보며 개학을 준비하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연이은 방문으로 손님치레를 톡톡히 하는 중이다. 150평 규모에 약 5만 권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어린이 전문서점인 만큼 엄마들의 입소문은 무섭게 퍼져나갔다. 그렇다고 소문만 무성한 속빈 강정쯤으로 여기는 건 성급한 판단이다. 실제로 노원문고 3매장에 들어서면 다른 서점과는 뭔가 다른 걸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고객의 손이 가는 곳은 서가에 잘 분류돼 꽂혀 있는 '책' 이지만 고객의 발목을 잡는 것은 서점 안쪽에 마련된 문화공간이다. 탁 대표는 혼자 정독도 해보고, 읽은 책을 놓고 친구와 토론도 해보고, 잠시 짬을 내 차를 마셔도 이상할 것 없는 공간을 서점 내에 마련했다고 한다. 어린이 전용 독서공간, 세미나실, 북카페 등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멀티 문화공간이다.

"서점도 장사니까 이윤추구가 최대 목표겠지요. 그러나 노원문고 3매장은 다른 서점과는 좀 다릅니다. 서점업을 시작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면서 이 지역을 고향처럼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동안의 수익을 일부나마 이 지역 사람들에게 환원해 보자는 뜻이 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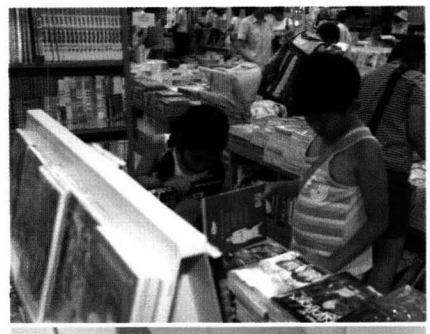
특화된 전문서점, 그것도 문화사업 마인드가 중심인 서점을 꾸리려면 선례를 분석하는 일이 우선이었다. 부지런히 서점정보를 수집하던 탁 대표는 어린이 전문서점계에선 이름난 경기도 고양시의 동화나라, 서울시 마포구의 초방을 방문하면서 노원문고 3매장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게 됐다. 서점운영 자체를 인생, 즉 삶으로 여기는 어린이서점 대표들을 통해 감명도 많이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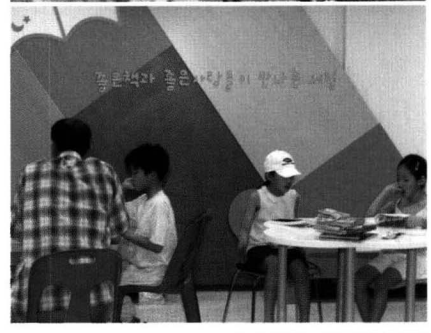
"우리나라 서점문화는 아직은 후진적이라고 해야죠. 물건 파는 데 급급한 단계는 벗어났으나, 단순 서비스에 신경쓰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젠 고객을 감동시키는 단계로 발전해야겠지요. 두 곳 서점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서점 전문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원문고 3매장을 운영하며 가장 신경쓰는 부분도 직원교육입니다."

탁 대표는 서점직원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설명한다. 고객이 찾는 책을 서가에서 찾아주는 직원은 초보적인 수준이며, 고객이 특정 책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간단하게나마 내용과 주제를 말해 줄 수 있다면 가능성 있는 직원이다. 서점이 발전하려면 후자의 직원들이 책에 대한 구체적인 카운슬링까지 도맡는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 전문적인 북마스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서점이 대형화되면서 북마스터 개념이 시도되긴 하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앞으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탁 대표의 생각이다. 그런 까닭에 노원문고 3매장에 근무하는 여덟 명의 직원들은 모두 독서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요즘처럼 출판사가 어려울 땐 서점도 어렵죠. 서로 공생관계입니다. 서점이 전문성을 갖췄을 때 손님이 오게 되고 서점 운영이 잘돼야 출판사도 책을 더 찍을 일이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일반서점들도 책만 팔 게 아니라 고객을 불러올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공간을 만들어놓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이곳을 활용할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노원문고는 개장 이후 연일 북새통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다. 최근엔 학부모 고객들을 붙잡는 또 하나의 즐거움, 교육 프로그램이 2,3일에 한 번씩 무료로 제공되면서 엄마들에게 인기도 높다. "올 여름은 워낙에 더워서 아이들을 내보내기가 힘들었으나, 노원문고 개장 후엔 역 근처로 나오는 일이 많아졌다"는 학부모 안진현 씨(상계동)는 "시원한 곳에서 책도 읽고 좋은 강연도 들으니 정말 좋다"고 말했다.





☎ 노원문고 02 951 0633

이곳엔 토요 독서강좌, 토요 책나라 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서점측은 앞으로 프로그램 횟수도 늘리고 아이템도 다양하게 구상해 볼 계획이다.

"오늘은 승산출판사 황승기 사장께서 초등학교 수학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부모님들의 반응이 적극적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살려 전문서점은 물론, 서점 자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론 노원구 전체의 문화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겠습니다."

탁무권 대표는 고객들의 의견, 직원들의 아이템 등을 적극 수렴해 전문서점으로서의 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 환경단체가 주관하는 '생태계 교실' 등 지역단체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서점공간을 활용해 제공할 방침이다. 출판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